

# 근대 부산·경남 지역의 매체 현황과 지역문학의 양상

이 순 옥 (부산대)

## < 목 차 >

- |                          |                        |
|--------------------------|------------------------|
| 1. 들머리                   | 3. 광복기, 공론장의 확대와 매체 투쟁 |
| 2. 나라잃은시대, 매체 발간의 지역 개별성 | 4. 마무리                 |

### 국문초록

신문 잡지 매체의 발간은 문학 생산과 향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문학사회를 이루는 핵심기반이다. 근대문학이 매체 투쟁의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체 발간 현황과 전통에 대한 이해는 문학 연구의 기본 전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문학과 문학사회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실질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나라잃은시대와 광복기에 발간된 신문, 잡지, 동인지 매체를 중심으로 부산·경남 지역의 매체 환경을 살피고 지역문학의 존재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나라잃은시대 부산·경남 지역문학은 대체로 소지역별 매체 발간의 개별성이 두드러진다. 『신시단』을 제외하고는 주로 소지역 간 필진 교류를 비롯한 문학적 연대 없이 지역 내부에서 문필활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오히려 지역사회 안쪽에서 대중계몽에 주력하면서 문학담론을 생산함으로써 문학의 대중화에 이바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광복기는 공론장이 대폭 확대되면서 다양한 담론들이 생산, 유통되었으며, 이념지형에 따

라 작가들의 매체 선택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정 매체에 기반한 문학 활동이 곧 작가의 이념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었을 만큼, 지역 내의 매체 지형의 변화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들 매체를 기반으로 지역 내부에서 성격이 다른 문학 단체가 결성되고 조직 활동을 펼쳐나간 것은 광복기의 특징적인 현상이라 할 만하다.

주제어: 매체, 문학매체, 문학사회, 매체투쟁, 부산·경남 지역문학

## 1. 들머리

최근 근대문학 연구는 주제의 확장, 연구 관점과 방법론의 다각화, 매체 연구 집중화, 연구 대상의 다변화 등의 경향과 맞물려 기존 문학사를 재편할 수 있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중심주의를 벗어나 지역 단위의 문학 전통과 문단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근대문학사에 대한 종합적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 경향의 변화는 문학을 통한 지역의 발전과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지역문학 관련 연구 성과나 소지역 중심의 문학사가 폭넓게 발간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변화 덕분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역문학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는 적지 않은 편이다. 특정 매체나 명망 있는 문인 위주로 지역문학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관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부산·경남 지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향파 이주홍이 경남 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문학인의 현황과 활동을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도 지역문학 연구는 여전히 인물 중심이거나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sup>1)</sup> 그런

1) 이주홍, 「부산문단의 20년」, 『부산문예』 제2집, 예총 부산지부, 1965.10, 10~17쪽 ; 이주홍, 「부산문단사(상)」, 『시인들』 제1집, 문교사, 1972.5, 105~108쪽 ; 이주

까닭에 지역 단위에서 발간한 신문 잡지 매체와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문학사회의 동향에 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매체를 중심으로 문학 전통과 의미를 규명한 경우에도 일차문헌의 한계로 지역문학의 지형도를 종합적으로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 단위의 문학사회 형성과 전개과정, 소지역과의 교류와 필진 연대, 중앙문단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소지역 단위에서 발간된 매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전히 미발굴 매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체는 문학사회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실질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말할 수 있다.

두루 알다시피 근대문학의 형성과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실질적 기반은 신문 잡지매체였다. 신문 잡지 매체의 발간은 문학 생산과 향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지역 문학사회를 구축하는 핵심기반이다. 근대문학이 대체로 매체 투쟁의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체 발간 현황과 전통에 대한 이해는 지역문학 연구의 기본 전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매체는 한 작가의 문학적 생애를 재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학사회의 동향과 특성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가 근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새로운 매체의 발굴을 통해 기존의 관점을 재구하고 지역문학사 서술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문단 형성의 핵심기반인 신문, 잡지, 동인지 매체를 중심으로 부산 지역 문학사회의 매체 환경과 지역문학의 실체를 고찰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sup>2)</sup> 그런데도 문학매체의 발간 기반과 현황, 문학사회의 형성

---

홍, 「부산문단사(하)」, 『시인들』 제2집, 문교사, 1972.7, 102~106쪽 ; 이주홍, 「부산문학사략」, 『부산문학』 제6집, 한국문인협회 부산지부, 1973.12, 60~80쪽 ; 『경남문학사』, 경남문인협회, 1995 ; 『부산문학사』, 부산문인협회, 1997 ; 양왕용, 「격동기의 중진들과 문학청년들의 활발한 시작활동: 해방기와 전쟁기의 부산시단」, 『한국 현대시와 지역문학』, 작가마을, 2006, 97~132쪽.

2) 여기에 대해서는 이순욱의 연구가 여럿 있다. 「광복기 부산 지역 문학사회의 형성과 창작 기반」, 『석당논총』 제50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97~128쪽 ; 「시인 염주용의 매체 활동과 『문예신문(文藝新聞)』」, 『석당논총』 제52집,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2.3, 177~219쪽 ; 「광복기 경남·부산 시인들의 문단재편 욕망과

과정, 지역문학운동의 실체가 온전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미발굴 상태로 남아 있는 매체가 적지 않고, 매체 발간의 전통을 실질적으로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나라잃은시대와 광복기에 발간된 신문, 잡지, 동인지 매체를 중심으로 부산·경남 지역의 매체 환경을 살피고, 지역문학의 존재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연구방법을 예각화하여 한국문학사에서 지역문학의 존재방식과 구도를 종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시각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sup>3)</sup>

## 2. 나라잃은시대, 매체 발간의 지역 개별성

근대 문학매체 중에는 국가문학사나 지역문학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름만 존재하고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매체가 적지 않다. 경남·부산 지역문학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특히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서 간행한 소지역의 매체는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다.<sup>4)</sup> 1990년대 후반부

---

해방 1주년 기념시집 『날개』, 『비평문학』 제43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3. 189~226쪽 ; 「광복기 부산 지역 동인지 『소예군상(小藝群像)』, 『근대서지』 제5호, 근대서지학회, 2012.6, 400~465쪽 ; 「‘혈탄(血彈)’으로서의 글쓰기와 문학적 실천 : 광복기 요산 김정환의 미발굴 단편소설 『길벗』, 『근대서지』 제13호, 근대서지학회, 2016, 320~352쪽 ; 「정전체제의 형성과 부산 지역 문학사회의 동향』, 『지역과 역사』 32집, 부경역사연구소, 2013.4, 37~65쪽. 최근 박태일이 근대 문예지 『종(鐘)』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부산 지역 근대 첫 문예지 『종』, 『근대서지』 제5호, 근대서지학회, 2012.6, 359~374쪽.

- 3) 개별 매체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른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4) 이는 비단 한국문학이나 부산 지역문학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광복기 마산 지역에서 발간된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경남지부 기관지 『낭만파(浪漫派)』 1집, 장봉호, 김원룡, 유도희, 이종갑, 채항석, 이창열, 이석환 등이 필진으로 참여한 『무궁(無窮)』, 한국전쟁기 김춘수, 유치환, 김상옥, 이원섭, 김수돈, 천상병 등이 동인으로 참가한 문중마산지부 발행의 『낙타(駱駝)』는 형성이 마산 지역문학의 실체를 규명해 줄 수 있는 핵심매체들이다.

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鐘)』<sup>5)</sup>, 『신흥시단(新興詩壇)』<sup>6)</sup>과 『생리(生理)』<sup>7)</sup>들이 발굴되어 실체가 공개되었을 뿐, 여전히 근대 경남·부산 지역 문학매체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1920년대 이후 경남·부산 지역의 매체 환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이 자리에서는 현재 확인 가능한 몇몇 매체 특성을 개관함으로써 지역문학의 존재 양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표 1] 나라잃은시대 경남·부산 지역 발행 신문 죽보기

제호	창간일	언어	발행 주기	발행지	발행인	비고
釜山時報	1892.7.1.	일문	일간	釜山府 西町 4丁目 6	今川廣吉	
釜山日報	1907.10.1.	일문	일간	釜山府 大倉丁 1	堺新太郎	
南鮮日報	1908.10.1.	일문	일간	馬山府 都町 2丁目 3의 32	高橋武夫	
慶南日報	1909.8.12.	국문	격일간	晋州城内 1洞	張志淵	
東洋水産新聞	1925.12.3	일문	순간	釜山府 南濱町 1丁目 60	林朝洋	

5) 박태일, 앞의 글, 359~374쪽.

6) 『지역문학연구』 제3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9, 201~119쪽.

7) 『지역문학연구』 제2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3, 197~216쪽.

8) 근대개몽기에 발간되었던 『조선신보(朝鮮新報)』(1881.12~), 『조선시보(朝鮮時報)』(1892.5~), 『부산상황(釜山狀況)』(1896~), 『조선매일신문(朝鮮每日新聞)』(1904.12~), 『조선일보(朝鮮日報)』(1905.2~), 『부산일보(釜山日報)』(1907.10~), 『동양수산신문(東洋水産新聞)』(1925.12~), 『부산(釜山)』(1926.7~) 등의 일문 신문 잡지매체는 제외한다. 이들 매체 또한 근대 부산 지역의 문학 동향이나 재조선 일본인의 문학 활동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나라잃은시대 경남·부산 지역 발행 잡지·동인지 죽보기

제호	창간일	언어	발행 주기	발행소	발행인	발행지	비고
鷲山寶林	1920.1.	국문	월간	조선불교 청년회 통도사지회	李種天	양산	
參格詩選	1921.12.	한문	연간	부산문예회	李晚榮	부산	
釜山	1926.7.8.	일문	월간	부산부	吉田正廣	부산	
咸安	1926.7.	국문	월간	함안학우회	李喜錫	함안	
참새	1926.8.	국문	월간	참새동인회	卓相洙	통영	등사본
平凡	1926.8.	국문	월간	평범사	許永鎬	부산	
鐘	1927.	국문	월간	종사	俞東濬	부산	
新詩壇	1928.8.	국문	월간	신시단사	新明均	진주	
回光	1929.3.	국문	월간	조선불교학인연맹	金德秀	합천	
掃除夫	1929.7.	국문	월간	소제부시사	柳致眞	통영	
福音과 宗教教育	1931.5.	국문	월간	경남노회 종교교 육협회	孟皓恩	마산	
慶南教會報	1931.5.	국문	월간	경남노회종교교육 부	孟皓恩	마산	
通信文學會 報	1932.	국문	월간	통신문학회	金錫準	부산	
天國福音	1932.10.	국문	월간	천국복음사	李昇遠	부산	
新興詩壇	1934.9.	국문	월간	신흥문예사	許東圃	부산	
聖貧	1937.4.	국문	월간	성빈학사	梅見施	부산	
生理	1937.7.	국문	부정기	생리사	柳致環	부산	

신문매체를 제외하고 근대 부산 지역 문학사회를 뒷받침했던 잡지·동인지 매체는 [표 2]와 같다.<sup>9)</sup> 물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매체도 여럿 있을

9) 부산·경남 지역의 매체 발간 현황에 대해서는 박정상의 다음 글들에 크게 기대었으며, 신문 잡지 매체의 문학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보완하였다. 박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단행본 문학매체를 들 수 있다. 1928년 포석 조명희의 첫 소설집 『낙동강』을 발간한 곳이 부산의 백악사(영주도 26번지 경남인쇄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1927년 『조선지광(朝鮮之光)』 7월호에 발표된 이 소설은 김기진이 조명희를 무산계급 문학운동 “제2기의 선편을 던진” 작가라 규정하면서 자연발생적인 신경향과 문학을 넘어 본격적인 프로문학의 출발을 알리는 작품으로 평가한바 있다. 부산 지역문학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는 낙동강문학의 정수라 할 만하다. 또한 한시동인회인 부산문예회에서 낸 『참격시선(參格詩選)』(1921.12)이나 정준모의 한시집 『경제사율(經題詞律)』 들도 부산의 소중한 근대문학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근대문학사가 국문문예 위주로 구축되었음을 고려할 때, 개신교 장로 정준모의 한시집이나 부산문예회 주관 시회에서 발표한 한시를 가려 뽑은 한시집을 통해 근대문학의 존재방식을 읽어낼 수 있다. 신문매체의 사조란(詞藻欄), 즉 문예란을 통해 한시는 근대 자유시나 시조와 나란히 근대문학의 실질적인 갈래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취산보림(鷲山寶林)』은 양산 통도사에서 창간한 잡지다. 2920년 1월 창간되어 10월에 6집을 낸 뒤 폐간된 것으로 보인다. 발행인은 조선불교청년회 통도사지회이며, 1920년 10월 『조음(潮音)』으로 개제하여 매체 발간을 이어갔다. 울산청년회 창립멤버이자 동아일보 언양지국장을 맡았던 박병호(朴秉鎬)나 이종천 등이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호관(濤官)이라는 필명으로 3회분을 연재한 박병호의 「혈가사(血袈裟)」는 근대 최초의 추리소설로 꼽힌다. 이 소설은 1926년 울산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지만, 배부 금지 처분을 받는다. 잡지 매체는 특정 담론을 구축하고 재생산하는 주요한 통로다. 그런 점에서 불교적 색채가 농후하지만 『취산보림』은 1920년대 전반기 양산·울산 지역의 사회문화 지형과 문단 상황, 지식인의 동향을 이해하는 주요한 매

---

정상, 「부산, 경남의 신문, 잡지 출판 고(I)」, 『지평』 제1집, 부산문예사, 1983.4, 70~75쪽 ; 「부산, 경남의 신문, 잡지 출판 고(II)」, 『문학과 삶의 지평을 위하여』, 부산문예사, 1983.11, 300~322쪽 ; 「부산 경남의 신문 잡지 출판 고-1945.8.15에서 1950.6.25까지」, 『전망』 제1집, 시로, 1984.9, 199~219쪽.

체다. 「혈가사」를 비롯한 이 매체에 수록된 몇몇 글들을 통해 이 매체가 새로운 지식담론의 생산과 계몽을 주도하며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사회 제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평범(平凡)』은 동래 평범사에서 범어사 출신의 지식인 허영호(許永鎬)<sup>10)</sup>가 발행한 월간 교양지로 1926년 10월 통권 3호로 중단되었다. 그는 1925년 11월 결성된 동래청년연맹의 창립준비위원과 창립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래 지역의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평범사는 지역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평범』은 여느 불교잡지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시, 소설, 콩트, 번역물, 외국문학 소개, 취미, 생활, 종교 등 다양한 갈래의 글들을 수록하고 있지만, 문예물이 중심이다. 그는 당시의 문학작품이 일반 민중의 정서를 대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순수문학이나 계급주의문학 모두를 비판한다. 대중문예현상모집을 통해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은 허영호의 문학에 대한 관점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평범』은 문학에 뜻을 둔 범어사와 동래 지역 중심의 문예지로서 문학의 대중화를 지향했던 교양잡지라 할 수 있겠다.

『통신문학회보(通信文學會報)』, 『천국복음(天國福音)』, 『성빈(聖貧)』은 박정상의 글<sup>11)</sup>에서 간단한 소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아직껏 그 실체가 공개된 적이 없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유인물로 발간된 『통신문학회보』의 발행인은 전석준(全錫準)이다. 주로 시류에 응하여 시, 소설, 수필 등을 묶은 부정기 문학회람지로 보인다.<sup>12)</sup> 『천국복음』은 이승원(李昇遠)이 발행인을 맡았으며, 서울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인쇄했다. 필진은 대체로 교역자들이며, 복음 전달을 목적으로 한 기독교 잡지 매체다.<sup>13)</sup> 설교나 강좌, 독물을 구분하여 편집하고 있으며, 종교시인 장정심의 시를 비롯하여 종교시를 게재함으

10) 허영호의 삶과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조명제가 소상하게 짚었다. 조명제, 「1920~30년대 허영호의 현실인식과 근대불교학」, 『대각사상』 제14집, 대각사상연구원, 2010, 137~170쪽.

11) 각주 9번을 참고할 것.

12) 박정상, 「부산 경남의 신문 잡지 출판 고 (2)」, 앞의 책, 315쪽.

13) 박정상, 위의 글, 315쪽.

로써 부산 지역 기독교문학의 뿌리를 엿볼 수 있는 매체로 보인다. 『성빈』은 영국인 매견시(梅見施)가 발행한 월간지로 인쇄는 상전인쇄소의 상전재(上田齋)에서 맡았다. 『천국복음』과 마찬가지로 설교, 강론, 감상, 시, 잡론 등을 수록하였다.<sup>14)</sup>

이들 잡지 매체를 제외하고 근대 경남·부산 지역 문학사회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체는 『참새』, 『종(鐘)』, 『신시단(新詩壇)』, 『소제부(掃除夫)』, 『신흥시단(新興詩壇)』, 『생리(生理)』다. 이들 매체에 대해서는 이미 간단한 해제나 연구가 있었다.<sup>15)</sup> 통권 4호까지 간행된 『참새』는 근대 최초의 시조동인지로 늘샘 탁상수가 주도한 매체다.<sup>16)</sup> 표제에 월간문예잡지를 내세운 『종』은 부산의 첫 문예잡지로 편집과 발행인은 유동준(兪東濬), 영주동 26번지 경남인쇄주식회사에서 찍었다. 『평범』이 동래 중심의 매체라면, 『종』은 부산포 중심으로 발간된 매체로 볼 수 있다. 현재 1928년 5월에 발간된 제3호만 전한다. 2호가 새로운 무산계급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1927년 9월 출판 보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창간호가 언제 발행되었는지는 현재 알 수 없다. 이 매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28명이다. 대부분 가명이나 필명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갈래는 시, 시조, 소설, 희곡, 동화, 논문, 감상문, 기행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특별시호(特別詩號)를 내세운 제3호는 각별히 시를 중심으로 엮었다. 이 매체는 익명과 가명을 번갈아 사용하는 비전문성, 근대문학을 지향하면서도 전근대/근대 합류 현상을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점, 개별 작품에서 습작기의 풍모가 뚜렷해 전문적인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sup>17)</sup> 그런 점에서 『종』은 제도문단으로 본격적으로 나

14) 박정상, 위의 글, 316쪽.

15) 박태일, 앞의 글, 359~374쪽 ; 노고수, 「부산 최초의 근대시 동인지 『신흥시단』에 대하여」, 『지역문학연구』 제3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9, 201~202쪽 ; 박철석, 「청마가 이끈 두 개의 동인지-『소제부 제1시집』과 『생리』지의 모습」, 『지역문학연구』 제2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9, 49~58쪽 ; 이순옥, 「근대 진주 지역문학의 진통과 『삼인집(三人集)』」, 『파성 설창수 문학의 이해』, 경진출판, 2011, 215~245쪽.

16) 임선목, 『『참새』지 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3.

17) 박태일, 앞의 글, 373쪽.

아가지 못한 아마추어 문사들이 결집한 문학잡지매체로, 필진들의 일부가 『신흥시단』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1920년대 후반 부산 지역 문학사회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체다.

『신시단』은 진주를 거점으로 전국 단위의 필진이 참여한 동인지다. 1928년 3월 18일 신시단사의 창립 발기인은 진주 지역 사회운동가인 김찬성, 진주 근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김병호와 엄홍섭, 그리고 진우촌이었다. 김병호와 엄홍섭은 신문과 잡지 매체를 통해 이미 제도문단에 활동하고 있었으며, 진우촌도 1925년 무렵부터 신문 매체에 지속적으로 시를 발표하고 있었다. 1928년 3월 18일 창립총회 개최 당시 5월 초순 창간호를 발행하겠다는 의지는 총독부의 검열로 5월 7일부로 발행금지를 당하고 만다.<sup>18)</sup> 1928년 8월 발행된 임시호가 곧 실질적인 창간호인 셈이다. 이 동인지에 참여한 진주 지역의 출신으로는 김병호, 엄홍섭, 김찬성, 소용수가 있으며, 거제 출신의 이구월과 통영 출신의 『참새』 동인 탁상수가 필진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군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개성 출신의 민병휘가 참여함으로써 『신시단』은 개성, 인천, 통영, 남해 지역 출신을 망라하고 있어 단순한 지역 동호인지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출판계에 널리 알려진 신명균을 후견인으로 삼아 전국 단위의 필진을 포진시킨 데서 이 동인지의 수평적인 지역 연대의식을 살필 수 있다. 나아가 『신시단』은 미국까지 연락하여 해외 교류를 모색했다는 점과 진주 지역 문사들과 사회운동집단의 교감이 작용했다는 점 또한 이러한 필진의 구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신시단』은 인천의 『습작시대(習作時代)』와 공주의 『백웅(白熊)』을 통합한 새로운 문예잡지인 『신인(新人)』과 연합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sup>19)</sup> 그러나 창간호를 낸 이후 신시단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자세하게 알 수 없다.<sup>20)</sup>

『신흥시단』은 부산 지역 최초의 순수 시동인지다. 독자들의 투고에 힘입

18) 「신시단 창간호 금지」, 『동아일보』 1928.5.19, 4면.

19) 「문예잡지 『신인』」, 『조선일보』 1928.11.5, 3면.

20) 『신시단』에 대해서는 이순욱, 「근대 진주 지역문학의 전통과 『삼인집(三人集)』」, 앞의 책, 경진출판, 2011, 215~245쪽을 참고할 것.

어 필진의 지역 분포는 전국에 걸쳐 있다. 통영 출신의 탁상수와 동래 출신 허영호를 비롯한 15명의 작품을 실었다. 『중』에서 작품을 발표한 배천애(裵天涯), 갑종, 고범(孤帆), 창주(蒼洲), 『평범』의 허영호가 작품을 수록한 점이 20년대 후반 부산 지역문학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매체는 서울 중심의 기성문단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작품 중심의 신흥문학 건설을 매체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다.

『생리』는 당시 화신백화점 부산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던 청마 유치환이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아 간행한 본격적인 시동인지다. 통영 출신의 유치상, 장응두, 최상규, 최두춘, 김기섭과 부산 출신의 염주용, 박영포가 참여했다.<sup>21)</sup> 광복기 『문예신문(文藝新聞)』을 발간하여 좌파 문화운동을 이끌었던 염주용과 경남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시조시인 하보 장응두 시인의 초기 문학 활동을 엿볼 수 있다. 이 매체에 참여한 염주용, 장응두, 유치환은 광복기 부산 지역 문학사회에서 사뭇 다른 행보를 걸었다.

이처럼 나라잃은시대 부산·경남 지역문학은 대체로 소지역별 매체 발간의 개별성이 두드러진다. 『신시단』을 제외하고는 주로 소지역 간 필진 교류를 비롯한 문학적 연대 없이 지역 내부에서 문필활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오히려 지역사회 안쪽에서 대중계몽에 주력하면서 문학담론을 생산함으로써 문학의 대중화에 이바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중』에 참여했던 필진들이 1930년대 『신흥시단』으로 매체 활동을 이어가면서 일정한 문학 전통을 구축하고 있었으나 집단적 흐름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이 시기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난 본격적인 문학매체는 『신시단』과 『생리』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

---

21) 청마 유치환의 지역 연고가 두드러지는 생리동인회는 매체를 5집까지 발간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 2집까지 확인할 수 있다.

### 3. 광복기, 공론장의 확대와 매체 투쟁

광복기 들어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으로 신문 잡지 매체의 발간이 두드러졌다. 이 시기는 매체 투쟁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남·부산 지역에서 발간된 신문 매체는 『경남신문』, 『남조선민보』, 『민주중보』, 『자유민보』, 『부산신문』, 『부산매일신문』, 『부산인민보』, 『인민해방보』, 『문예신문』, 『대중신문』, 『신한일보』, 『수산신문』, 『항도일보』, 『해상신문』, 『부산일보』, 『산업신문』 등 30종이 넘는다. 문학인에게 매체 선택이란 단순한 작품 발표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리할 수 없다. 이 시기 서울과 비교해도 경남·부산 지역의 신문 매체는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이 시기 신문매체의 발간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광복기 경남·부산 지역 발행 신문 죽보기

제호	창간일	발행 주기	발행소	발행인	비고
衆報	1945.9.1.	일간	釜山府 大蒼町 4丁目 36	金炯斗	
民主衆報	1945.9.20.	일간	釜山府 大蒼町 4丁目 36	金炯斗	
釜山情報	1946.9.24.	일간	釜山府 大蒼町 4丁目 40	郭慶鍾	
朝鮮日日新聞	1945.9.2.	일간	釜山府 佐川町 411	金局泰	
人民解放報	1945.10.8.	일간	釜山府 大蒼町 3丁目 8	盧百容	
新韓日報	1945.11.2.	일간	釜山府 大廳町 1街 35	河仁星	
釜山每日新聞	1945.11.28.	일간	釜山府 大橋通 2丁目	李宅國	
大衆新聞	1945.12.5.	일간	釜山府 本町 3丁目 76	朴日馨	
自由民報	1946.2.26.	일간	釜山府 本町 4丁目 23	金喆壽	
慶南日報	1946.3.1.	일간	晋州府 本町 184	許萬采	
南鮮新聞	1946.3.1.	3일 隔刊	馬山府 本町 188	金貴東	
釜山新聞	1946.5.3.	일간	釜山府 昭和通 3丁目 102	金竣源	
釜山日報	1946.9.10.	일간	釜山府 大蒼町 4의 36	河元俊	

蔚山時報	1946.12.25.	순간	蔚山邑 城南洞 66	車承烈	
水産新聞	1946.	주간	釜山府 南濱町 1丁目 43	安永善	
文藝新聞	1946.	주간	釜山府 大橋路 4의 48	廉周用	
釜山人民報	1946.	주간	釜山府 大蒼町 4의 36	姜明鎬	
東亞産業時報	1946.	주간	釜山府 大廳町 1丁目 35	李容熙	
慶南商工新聞	1946.	부정기	釜山府 大蒼町 2丁目 29	李在鉉	
自由聯合	1946.	부정기	釜山府 本町 4丁目 2	河岐洛	
晋州時報	1946.	주간	晋州府 榮町 142	李東樹	
經濟時報	1946.	순간	晋州府 經榮町 215		
嶺南民報	1946.	순간	晋州府 榮町 227	姜喆成	
民衆新報	1946.	일2회	晋州府 日出町 128	朴英煥	
바다신문	1946.	주간	統營邑 吉野町 147	李玉來	
文學新聞	1946.	부정기	晋州府 錦町	金炳鎬	
三千民報	1946.	주간	泗川郡 三川浦邑	삼천포 예술연 맹	
慶南新聞	1946.	주간			
固城新聞	1946.	주간			
産業新聞	1947.9.1.	일간	釜山市 東光洞 2街 261	李容熙	
南朝鮮民報	1947.12.8.	일간	馬山市	金亨潤	남선신문 개제
大衆日報	1948.1.	일간	釜山市 大廳洞 1街 35	朴文愷	대중신문 개제
大同日報	1948.2.17.	일간	晋州府 本城洞	朴明來	
每日新聞	1948.2.	일간	釜山市 大廳洞 3街 8		부산매일 신문 개 제
港都日報	1948.9.20.	일간	釜山府 大橋洞 1街 65	李鴻來	
民主新報	1950.2.	일간	釜山府 中央洞 4街 38	金禮俊	민주중보 개제

[표 3]의 신문 매체 가운데 현재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민주중보』, 『부산일보』, 『부산신문』, 『자유민보』, 『산업신문』, 『문예신문』, 『인민해방보』 등이다. 신문매체의 이념을 단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건준경남도지부의 이념적 지향을 고스란히 담았을 좌파 매체인 『인민해방보』(발행인은 노백용은 당시 건준경남도지부 위원장)를 제외하고, 창간 당시부터 중립지를 표방한 『민주중보』와 『부산신문』, 중립지에 우파지로 옮겨간 『부산일보』와 『산업신문』, 그리고 김철수가 『인민해방보』에 대한 대타의식에서 발행한 『자유민보』는 단연 우파 매체이다. 더욱이 1946년 5월 미군정이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법령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한 이후에는 매체의 논조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며, 급기야 좌파 매체는 폐간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지역문학인들의 산발적인 신문매체 투고 활동을 제외한다면, 가장 주목할 만한 매체는 주간지 『문예신문』이다. 이 매체의 편집 겸 발행인은 염주용이며, 타블로이드 2면으로 매주 월요일 발행되었다. 광고를 포함해서 9~12단의 구성에 제도 그대로 문예물 중심으로 신문을 꾸렸다. 발행소는 부산부(釜山府) 대교통(大橋通) 1의 48번지다. 「사고(社告)」를 통해 알 수 있는 바, 편집국, 공무국, 선전부, 연예부, 총무부, 판매부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현재 50호(1948.1), 54호(1948.4), 56호(1948.5), 58호(1948.5.17), 59호(1948.5.24), 60호(1948.6.14)분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매체는 문예를 표방한 신문답게 시, 소설, 수필, 평론, 아동문학(동요, 동시, 동화)을 중심으로 지면을 구성했으며, 지역사회의 음악, 미술, 연극, 영화계의 소식뿐만 아니라 학교사회의 동향까지 기사화하고 있다. 필진은 지역 거주 문인과 비거주 문인, 좌파 문인과 우파 문인을 아우르고 있다. 그런 만큼 이 매체의 성격을 쉽게 규정할 수 없다. 주요 필진은 김수돈, 오영수, 박영한, 염주용, 박영준, 이주홍, 홍효민, 유치환, 임서하, 김석호, 백상현, 최계락 등의 우파문인들이다. 이 가운데 부산 거주 문인으로, 김수돈, 오영수, 박영한은 경남공립여자중학교, 유치환은 경남중학교, 이주홍은 동래중학교, 삼남문학회 회원이었던 김석호 또한 교사로 일했을 가능성이 높다. 오영수, 박영한은 신인이었

으며, 진주 영남문학회의 백상현과 최계락 또한 마찬가지다. 이로 미루어 영남문학회의 기관지인 『영문』과 『문예신문』 사이에 활발한 필진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수돈, 오영수, 염주용, 유치환은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경남지부 회원이며, 임서하 또한 조선청년문학가협회 소설부와 서기국에 몸담고 있었다. 반면, 『새동무』 주간 김원룡과 전위시인 김상훈, 이병철은 좌파 계열의 시인이다. 필진 구성에서 기존의 좌우 편향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도적인 성향을 지닌 매체라 볼 수 있겠다. 그렇다고 광복기 염주용의 조직 활동으로 보아 좌우를 통합하려는 뜻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문예신문』은 1948년 정부 수립 이전까지 좌우 특정 계파나 지역에 함몰되지 않고 다양한 필진을 구성했으며, 『영문』, 『죽순』과의 필진 교류를 통해 지역문학운동의 연대를 구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예신문』은 신문 매체가 난립했던 부산의 언론지형에서 유일하게 신춘문예를 통해 신인을 발굴하고 학생문사들에게 투고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 문학사회를 두텁게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sup>22)</sup>

잡지 매체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광복 직후 항도 부산은 각종 사회단체의 조직과 매체의 발간으로 그야말로 열망으로 가득 찬 지역이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억압된 가치들이 분출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정치의식이 일상화되었다. 여러 신문매체에서 두루 확인할 수 있는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강연회나 웅변대회, 가극단, 악극단 공연, 한글강습회 등이 항도(港都)를 들쭉이게 만들었다. 마치 열병처럼, 광복기 새로운 국가와 문화건설에 대한 불길이 성화처럼 타올랐다. 이는 특정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이념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며, 각 지역에서는 문화동맹이 결성되고 새로운 문화전선이 구축되었다. 이는 기관지나 일정한 이념을 표방한 잡지매체의 발간으로 이어졌다. 이들 잡지매체 또한 신문매체와 마찬가지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재 실제조차 파악할 수 없는 형편이다.

22) 자세한 내용은 이순욱, 「시인 염주용의 매체 활동과 『문예신문(文藝新聞)』」, 앞의 책, 177~219쪽을 참고할 것.

[표 4] 광복기 경남·부산 지역 발행 잡지·동인지 죽보기

제호	창간일	발행 주기	발행소	발행인	발행지	비고
초롱	1945.9.		마산문화동맹		마산	문예지
文藝朝鮮	1946.1.1.	월간	문예조선사	朴能出	부산	
民友	1946.1.1.	월간	민우사		진주	
新朝鮮	1946.1.5.	월간	신조선사	梁星哲	부산	
浪漫派	1946.1.		낭만파사	趙鄉	마산	
衆聲	1946.2.15. 1946.2.20.	주간 월간	중성사	金煥善	부산	
前線	1946.3.	월간	인민해방보사	盧在甲	부산	
등불	1946.4.	월간	敎盟文化宣傳部	徐遇容	밀양	
학생동무	1946.4.	월간	학생동무사	鄭容洙	부산	
한얼	1946.5.	부정기	영남국어학회	유열	부산	
배달동무	1946.		배달학원		부산	
大韓民報	1946.	부정기		高天敎	부산	종합지
畸人	1946.	부정기		金亨	부산	종합지
無窮	1946.	계간			마산	
洛東文化	1946.		문화건설대		진주	
등불	1946.10.	부정기	진주시인협회	薛昌洙	진주	
華岳	1947.6.		화악동인회	朴昶灝	밀양	
文化建設	1947			金廷漢	부산	
鐵友	1947		부산철도사무소 부우회 부산지 부	李正洙	부산	
小藝群像	1948.11.1.	부정기	소예군상사	소예군 상사동 인회	부산	

나라잃은시대와는 달리 새로운 민족국가건설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듯, [표 4]에서처럼 다양한 잡지들이 발간되었다. 1946년 들어 부산의 첫 문예지 『문예조선(文藝朝鮮)』(문예조선사, 1946.1) 발간을 시작으로 종합지 『신조선(新朝鮮)』(신조선사, 1946.1), 뒷날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이하 청문협) 경남지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우파 종합지 『중성(衆聲)』(주간·월간, 중성사, 1946.2)이

나란히 간행되면서, 1949년까지 월간지로서의 명맥을 이어갔다. 3월에는 좌파 종합지 『전선(前線)』이 발간되었다. 이 매체를 발행하기 앞서 『진보(進步)』라는 잡지를 발행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방화로 원고 자체가 소실되었다는 정황을 통해 볼 때, 잡지 매체의 발간은 그야말로 이념투쟁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뒤이어 한글운동단체인 한얼문음에서 기관지 『한얼』(1946.5, 뒷날 『국어』로 개제)을, 한얼문음의 결가지인 학생동무사에서 『학생동무』(1946.4~), 부산철도사무소 부우회(部友會) 부산지부에서 발간한 『철우(鐵友)』(1948), 학생동인지 『소예군상(小藝群像)』(1948.1), 그리고 1949년 7월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경남지부 결성식에서 『중성』, 『문예신문』과 함께 반동 매체로 규정된 『문화건설(文化建設)』(발행인 김정환, 1948) 등이 이 시기 부산 지역의 주요한 매체 환경을 이루고 있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좌파매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휴간과 정간을 거듭하고 창간호로 끝나버린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민족국가건설과 문화건설의 열망을 담아내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시기 부산에서 발간된 주목할 만한 잡지매체는 『중성』이다. 『중성』은 『전선』(인민해방보사, 1946.3.10)의 전신인 『진보(進步)』에 대응하여 발간된 중도우파 종합지로 볼 수 있다.<sup>23)</sup> 『중성』은 자체적으로 인쇄부를 두고 1946년 2월 10일 인쇄에 들어가 주간지는 2월 15일, 월간지는 2월 20일에 각각 발간되었다. 『중성』(주간)의 발행인은 김환선(金煥善)이며, 편집인은 탁창덕(卓昌德)<sup>24)</sup>이다. 반면, 『중성』(월간)은 김환선이 발행을, 편집은 천철수(千

23) 『전선』은 1945년 후반 『진보(進步)』가 방화로 소실된 뒤 다시 편집에 착수하여 발간한 매체다. 「創刊辭에 代하여」, 『전선』 창간호, 인민해방보사, 1946.3.10, 2쪽; 「편집후기」, 같은 책, 82쪽. 자세한 내용은 이순욱, 「광복기 부산 지역 문학사회의 형성과 창작 기반」, 앞의 책, 109~111쪽을 참고할 것.

24) 소성(蘇星) 탁창덕은 1913년 경남 진주에서 났다. 1933년 3월 진주공립고등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중앙대학교 법과를 거쳐 명치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귀국한 뒤 만주국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6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다. 광복 후 귀국하여 『부산매일신문』 주필 겸 편집국장, 『중성』 발행인 겸 주간, 청문협 경남지부 대표, 문흥 경남지부장을 거쳐 한미문화협회 상무이사, 부산방송국장을 지냈다. 1957년대 후반에는 자유당에 입당하여 자유당 중앙위원과

樹)<sup>25)</sup>가 맡았다. 김환선은 당시 경남피복공업조합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뒷날 『부산매일신문』을 인수하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천세옥<sup>26)</sup>은 『자유민보』와 『부산신문』 기자로 일했으며, 1946년 6월 탁창덕(탁소성), 염주용, 오영수, 조항 등과 함께 청문협 경남지부 결성에 참여했던 문학인이다. 지역의 신문 잡지매체에 발표한 시와 소설이 적지 않다. 『중성』의 고정필진이자 편집을 주도했던 탁소성은 김환선의 매체로, 『부산매일신문』의 편집국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이 무렵 그는 조항과 공동시집 『남강(南江)』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만큼<sup>27)</sup> 청문협 경남지부의 핵심인물로 활동했다.

현재 『중성』의 매체 발간 전모를 확인할 수 없다. 매체 성격의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없다. 주간 『중성』은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경남본부 제공판’으로 발간된 제5호(1946.9.25.) 이후는 확인할 길이 없다.<sup>28)</sup> 반면, 월간 『중성』은 제9호(1949.5)를 확인할 수 있는데, “차호의 준비를 완료”<sup>29)</sup>했다는 편집인(김석호)의 말을 볼 때 10호까지 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946년 중반을 지나면서 『중성』은 『낭만과』와 함께 청문협 경남지부 기관지 역할을 했다. 부산·경남 지역 우파 문학사회의 활동을 뒷받침하던 실질적인 매체로 기능했던 셈이다. 그런데 『중성』 발간을 주도하면서 청문협 경남지부 대표를 맡았던 탁소성이 1947년 3월경 문련 경남지부 결성대회에서 위원으

---

경남도당 문화부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 25) 천세옥(千世旭)의 본디이름으로 보인다. 『중성』(월간) 창간호의 「편집여목」과 『중성』(주간) 창간호의 「편집후기」를 쓴 이는 “旭”이다. 이 매체에 각각 소설 「怨恨」과 시 「民族의 回轉」을 발표하고 있는 천세옥이 바로 편집인 천철수와 동일한 인물로 볼 수 있겠다.
- 26) 석랑(石浪) 천세옥은 1922년 경남에서 나서 와세다대학에서 수학했다. 1943년 7월 『와카비토(若人)』 소설 현상모집에 「現實의 色彩」가, 1944년 4월에는 『선데이매일』 현상문예에 「靑의 季節」이 당선되어 문학사회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9년 12월 국민보도연맹 북부산지구연맹이 결성될 때 간사로 활동했다.
- 27) “10월 중순 출판 예정”이라는 『남강』 출판 예고 광고 참고. 『중성』(주간) 제5호, 중성사, 1946.9, 90쪽.
- 28) 청문협 경남지부에 대해서는 이순욱, 「광복기 경남·부산 시인들의 문단 재편 욕망과 해방 1주년 기념시집 『날개』」, 앞의 책, 189~226쪽을 참고할 것.
- 29) 「편집후기」, 『중성』(월간) 5월호(제9호), 중성사, 1949.4.10, 80쪽.

로 참여한 것은 『중성』의 매체 성격 변화를 드러내는 단서로 볼 수 있다. 당시 요산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탁소성의 가입은 청문협으로 대표되는 우파문단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며, 이는 부산 지역 문화전선의 재편을 드러내는 징후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성』은 단정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분명히 좌파 매체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9년 7월 17일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경남지부 결성 당시 『중성』은 『문예신문』, 『문화건설』과 함께 “민족상잔을 적극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반동문화인들의 소굴”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sup>30)</sup>

반면, 『전선』은 “각 노조, 농조, 청동(靑同), 기타 진보적 단체의 사교실”을 자임한 매체이다. 편집 겸 발행인은 노백용의 아들인 노재갑이며, 인민해방보사에서 발간했다. 윤일, 노재갑, 이영근, 허성도는 조공 계열의 좌파그룹이다. 문학 쪽에서 보면 카프 계열의 신고송, 박석정 등이 이 매체의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 유학 시절 이들과 연고가 있었던 김정환이 광복 초기 부산 지역의 좌파 문단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한얼』은 한얼몸음에서 낸 한글운동 기관지며, 『학생동무』는 한얼몸음 아동과의 기관지였다. 한얼몸음은 부산 지역 한글운동의 거점으로서, 지역 안쪽의 문화계 인사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국어교사를 규합하여 강습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지 『한얼』, 『학생동무』, 교과용 도서 『중등국문독본』을 발간함으로써 민족교육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갔던 단체였다. 이 단체는 1946년 12월 23일 영남국어학회로 단체의 이름을 변경하였다. 이 단체의 회원들이 주도하여 만든 한글교육기관이 바로 배달학원이었다. 배달학원은 초기에는 국어와 역사를 담당했던 유열과 장삼식, 정신득, 박지홍, 홍남식, 정용수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점차 경남한글문화보급회 회원, 경상남도 학무국 인사, 경남·부산 지역에서 국어교육을 담당했던 교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점차 조선어학회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직적·수평적 연대를

30) 「文總 경남지부 再昨 미공보원에서 결성 성대」, 『부산일보』, 1949년 7월 19일치, 2면;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경상남도지부 결성식 거행」, 『자유민보』, 1949년 7월 19일치, 2면.

구축해 나갔다. 『한얼』은 1946년 5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1947년 6월 2째 권 2째호(통권 3호)부터 『국어』로 개제하여 한글연구단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반면, 『학생동무』는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946년 4월 11일 제2호를, 5월 1일 이미 프린트로 간행한 1호가 잘 보이지 않는 관계로 1호와 3호를 합쳐 제3호를 발간함으로써 국어와 역사, 교양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31)</sup>

이상에서 광복기 부산·경남 지역의 잡지매체의 발간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새로운 국가와 민족문화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념 노선에 따라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여러 매체를 간행했다. 광복 직후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조선문학동맹 부산지부,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경남지부, 삼남문학회 등의 각종 문화단체가 결성되었는데, 문단 체계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좌우 이념 투쟁은 당시 발간되었던 이들 잡지 매체를 통해 전개되었다고 볼 있다. 가장 대표적인 매체가 바로 민전 경남지부의 기관지로 요산 김정환이 주도했던 『전선』과 초기 좌파문단의 우세 속에서 탁소성이 주간지와 월간지로 나누어 간행했던 『중성』이다.

## 4. 마무리

지역문학의 존재 의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매체다. 그런 점에서 지역문학 매체는 다분히 매체 투쟁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나라잃은시대와 광복기에 발간된 신문, 잡지, 동인지 매체를 중심으로 부산·경남 지역의 매체 환경을 살피고 지역문학의 존재 양상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들 매체는 문학인들에게 발표지면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특정 담론을 구축하고 재생산하는 주요한 통로라는 점에서 매체 발간 당시 지역의 사회문화 지형과 문단 상황, 지식인의 동향을 이해하는 필수조건

31) 이순욱, 「광복기 부산 지역 한글운동과 『한얼』, 『우리문학연구』 제53집, 우리문학회, 2017.1, 409~433쪽.

이다.

나라잃은시대의 부산·경남 매체를 통해 지역 개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 단위의 필진을 구축함으로써 지역문학운동을 확대해 나갔던 진주와는 달리, 경남·부산 지역의 매체는 소지역에 안주하면서 문학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었다. 대체로 문학동호회의 성격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으며, 지역 거점 문예지로서의 기능만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소지역 간 연대를 구축하면서 문학운동의 차원으로 나아간 것은 광복기의 특징적인 양상이었다.

광복기는 공문장이 대폭 확대되면서 다양한 담론들이 생산, 유통되었으며, 이념지형에 따라 작가들의 매체 선택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정 매체에 기반한 문학 활동이 곧 작가의 이념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었을 만큼, 지역 내의 매체 지형의 변화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들 매체를 기반으로 지역 내부에서 성격이 다른 문학 단체가 결성되고 조직 활동을 펼쳐나간 것은 이 시기의 특징적인 현상이라 할 만하다. 가장 대표적인 매체가 바로 민전 경남지부의 기관지로 요산 김정환이 주도했던 『전선』과 초기 좌파문단의 우세 속에서 탁소성이 간행했던 우파지 『중성』(주간, 월간)이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지역문학 운동에서 매체의 정치적 의미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과거와 달리 지역문학 매체의 양적 팽창이 두드러진 시기가 바로 이즈음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 매체가 모두 지역문학의 성장에 결정적인 몫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매체는 일정한 이념적 지향성을 지니기 마련이고, 지역의 문학현실을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까닭에 지역의 매체 발간 전통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학의 실천적 가치를 조망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참고문헌

- 구연식 외, 『재부작고시인연구』, 아성출판사, 1988.
- 노고수, 「부산 최초의 근대시 동인지 『신흥시단』에 대하여」, 『지역문학연구』 제3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9, 201~202쪽.
- 김대상, 『부산경남언론사연구』, 대왕문화사, 1981.
- 김용호 엮음, 『1947년판 예술연감』, 서울: 예술신문사, 1947.5.
- 박경장 엮음, 『부산언론계현황』, 부산언론계편찬회, 1967.
- 박정상, 「부산, 경남의 신문, 잡지 출판 고(I)」, 『지평』 제1집, 부산문예사, 1983.4, 70~75쪽.
- \_\_\_\_\_, 「부산, 경남의 신문, 잡지 출판 고(II)」, 『문학과 삶의 지평을 위하여』, 부산문예사, 1983.11, 300~322쪽.
- \_\_\_\_\_, 「부산 경남의 신문 잡지 출판 고-1945.8.15에서 1950.6.25까지」, 『전망』 제1집, 시로, 1984.9, 199~219쪽.
- \_\_\_\_\_, 「동란기(1950.6.26.~1953.8.15.) 부산경남 지방의 신문잡지 출판 고」, 『전망』 제2집, 시로, 1985.7, 266~284쪽.
- 박철석, 「청마가 이끈 두 개의 동인지-『소제부 제1시집』과 『생리』지의 모습」, 『지역문학연구』 제2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9, 49~58쪽.
- 박태일,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1』, 청동거울, 2004.
- \_\_\_\_\_, 『마산 근대문학의 탄생』, 경진출판, 2014.
- \_\_\_\_\_,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4』, 경진출판, 2016.
- \_\_\_\_\_, 「부산 지역 근대 첫 문예지 『중』」, 『근대서지』 제5호, 근대서지학회, 2012.6, 359~374쪽.
- 양왕용, 『한국 현대시와 지역문학』, 작가마을, 2006.
- 이광우, 『회고와 추억』, 자가본, 2003.
- 이순옥, 「광복기 부산 지역 문학사회의 형성과 창작 기반」, 『석당논총』 제50집,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1, 97~128쪽.
- \_\_\_\_\_, 「광복기 경남·부산 시인들의 문단 재편 욕망과 해방 1

- 주년 기념시집 『날개』, 『비평문학』 제43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3, 189~226쪽.
- \_\_\_\_\_, 「근대 진주 지역문학의 전통과 『삼인집(三人集)』, 『과성 설창수 문학의 이해』, 도서출판 경진, 2011, 215~245쪽.
- \_\_\_\_\_, 「시인 엄주용의 매체 활동과 『문예신문(文藝新聞)』, 『석당논총』 제52집,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2.3, 177~219쪽.
- \_\_\_\_\_, 「광복기 부산 지역 동인지 『소예군상(小藝群像)』, 『근대서지』 제5호, 소명출판, 2012.6, 400~464쪽.
- \_\_\_\_\_, 「광복기 요산 김정환의 문학 활동 연구(1)-문단 활동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47호, 한국비평문학회, 2013.3, 225~260쪽.
- \_\_\_\_\_, 「광복기 요산 김정환의 문학 활동 연구(2)-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9,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11, 87~121쪽.
- \_\_\_\_\_, 『근대시의 전장』, 소명출판, 2014.
- \_\_\_\_\_, 「‘혈탄(血彈)’으로서의 글쓰기와 문학적 실천 : 광복기 요산 김정환의 미발굴 단편소설 「길벗」」, 『근대서지』 제13호, 근대서지학회, 2016, 320~352쪽.
- \_\_\_\_\_, 「광복기 부산 지역 한글운동과 『한얼』, 『우리문학연구』 제53집, 우리문학회, 2017.1, 409~433쪽.
- 이연직 엮음, 『경남인명록』, 대전: 동양출판사, 1947.
- 채백, 『부산언론사 연구』, 산지니, 2012.
- 한정호, 『지역문학의 이량과 고량』, 도서출판 경진, 2011.
- \_\_\_\_\_, 『지역문학의 씨줄과 날줄』, 경진출판, 2015.
- 『경남문학사』, 경남문인협회, 1995.
- 『부산문학사』, 부산문인협회, 1997.
- 『부산문학』 제5집(부산의 작고시인 특집호), 한국문인협회 부산지부, 1973.8.
- 『부산시사』 제4권, 부산직할시, 1991.

【Abstracts】

## The Aspects of Media and Regional Literature of Busan & Gyeongnam Province in the Modern Times

Lee Soon-wook

The publication of a newspaper magazine medium has a decisive influence on the literary production and enjoyment in the modern times. Thi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in studying Korean regional literature to draw the cultural map which is made of all the magazine media. For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various magazine media had played the vehicle role of literary struggles among the writers in Busan-Gyeongnam province. In other words, literary media had been in the core of local literary societies or associations. Thus,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reality and history of relations between literary media and regional literature for further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literary works and writers' life in the same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the area had there been various literary media. Every medium was published by a specific writer and it played the role of vehicle through which writers presented literary works that suited to the publisher's taste or emotion during the period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Thus, most the literary activities during the period could be evaluated as those of the like-minded literary society or circle. There was an exceptional city in which several literary media had conveyed non-regional writers whose basis were in Seoul.

2. There was a notable change on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literary media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Most publishers and their followers had used their own literary media as the vehicle of ideological struggle against those who were standing on the opponent point of politics, as well as the taste or knowledge about literature. Thus, most the literary activities during the period could be evaluated as those of literary media struggle among the different-minded literary associates. In other words, literary media had played the vehicle of aggravating the ideological division of Korean people, especially the local residents.

These results could be helpful for us to cultivate a new vision of approach to the Busan & Gyeongnam's regional literature.

Key Words : media, literary media, literary society, ideological struggle through media, Busan & Gyeongnam's regional literature.

이 논문은 2017년 2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3월 23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3월 2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